



[연합속보](#) | [국제](#) | [정치](#) | [경제/산업](#) | [사회/지방](#) | [문화](#) | [스포츠](#) | [정보/과학](#)

日징용 한국인 손배소송 美서 제기 추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특파원=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들이 일제 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을 대신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한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변호사 신혜원(38)씨는 7일 지난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처음 징용피해소송을 제기했던 대일민족소송단(징용, 징병, 군속, 위안부 피해 당사자그룹)이 한국 거주 징용피해자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해줄 것을 공식요청해와 최근 공동소송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미 거주 한인들이 징용피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수차례 있으나 한국 거주 피해자들이 미국 법정에 제소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일민족소송단의 법정대리인격인 한국의 이수경 변호사는 "신변호사팀과 공동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피해 당사자가 약 1천명에 달한다"며 "징용에 연루된 미국 내 일본 기업과 은행이 제소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에서 제기한 손배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당했으나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현재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해놓은 상태"라며 "일본보다는 미국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 공동소송을 추진케 됐다"고 밝혔다.

신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된 정재원(78.LA 거주)씨를 대신해 일본 굴지의 시멘트회사 오노다 시멘트(현 다이헤요 시멘트 전신)를 상대로 LA 민사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변호사팀에는 미국의 대표적 민권변호사인 배리 피셔 국제인권변호사협회 수석부회장과 샌디에이고의 집단소송 전문가인 데이비드 마컴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이들 변호사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한 뒤 금명간 징용에 관련된 일본 기업이나 은행별로 대표원고를 1명씩 정해 캘리포니아 주 또는 연방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 배상 판결 및 조정을 받아낸 뒤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7월 전쟁피해배상법을 제정, 캘리포니아 거주자나 그 자손이 2차 대전중 나치 독일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강압에 의해 강제노동을 한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2010년까지 해당국의 미국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정재원씨 소송사건 관할권을 둘러싼 다이헤요 시멘트와의 법정 싸움에서 LA 연방지법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coowon@aol.com

(끝)

[< 이전화면]